

5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열왕기하 4:8~37

네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
나. 내가 너를 위해
해 줄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더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
그가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어요.”

수넴 여인은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감사함을 느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해 줄 것이 있느냐?”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성경 암송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41)

하지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고 그 남편도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 수넴 여인은 약속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머리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두고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먼저 보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요?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답을 써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¹⁾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41~42)

¹⁾영접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네가 아이가 없으니 아이를
태어나게 해 주겠다.





아이를 살린 엘리사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보고 엘리사가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엘리사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살렸는지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 보세요.



요한복음 11:17~44



누가복음 7:11~17



마가복음 5:38~43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서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누구를 어떻게 대접할까?



수님의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엘리사처럼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빈 칸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사진을 붙이거나 얼굴을 그리세요.

우리 반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위의 사람 중 한 사람을 골라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할지 쓰고 실제로 대접해 보세요.

보기)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우리 반 _____ 선생님은 작은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출근해서 주일에 피곤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주일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신다.

우리 선생님은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가 놀러갈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 주신다. 출석이나 암송을 잘하는 친구에게 선물도 사 주신다.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있냐 물어신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런 우리 반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런 선생님을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6)

예화



대접과 상급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관에서 나이 든 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여관에 들어간 노인이 물었습니다.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은 다 사람들이 꽉 차 있군요. 우리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안내인은 마침 그 도시에서 여러 회의가 있는 관계로 빈 방은 아무 곳도 없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 한 시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당신들같이 멧있는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군요. 누추한 제 방에서라도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내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안내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안내인은 비바람 치던 날 만났던 그때 그 손님을 찾아와 달라는 초청장과 기차표가 들어 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그 젊은 안내인을 데리고 5번가 34번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새로운 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 주는 호텔일세.”

벼락에 맞은 듯이 그 젊은 안내인은 땅에 꺾꽂이 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호텔왕 윌리엄 월도르후아스틀이였고 그 호텔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하던 월도르후아스틀리아 호텔이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